

월간 제 46 호
 2006년 6월 5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 이달의 말씀 ■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5-6절)

편집인 겸 발행인 · 유은상 / 학생편집 기자 · 임현우 / 발행처 · 관악구 신림2동 103-170 대학촌교회내 / 전화 · 888-9111



6월 5일 오후 6시부터 문화관 중강당에서 2006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가 드려진다. 기독교직원들, 기독교학생들, 기독교수들이 함께 모여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한다. 모임 후에는 음미대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대별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의 설교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에서 시무하는 김형국 목사님이 담당한다.

태국 중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기독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

10여 년 간 이어져온 기독교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단기선교여행이 이번 여름 방학에도 이어진다. 프놈펜 대학 캠퍼스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죽음의 땅으로 일컬어졌던 캄보디아로의 선교는 홍종인 교수를 팀장으로 1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6월 30일에서 7월11일의 기간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탐마사트 대학 출랑 롱콤포대학 카세트 대학 등에서의 학생선교를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태국을 바꾸면 인도차이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은 강신후 교수를 팀장으로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번 여름의 단기 선교가 10년째 이루어지는 선교여행이다. 주우진 교수를 팀장으로하는 카자흐스탄 선교여행은 8월 15일- 29일 간에 걸쳐서 그리고 정운오 교수님을 팀장으로 하는 중국 단기 선교는 7월 14-24일 간 이루어지게 된다. 자세한 소식은 4, 5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매대 크리스천 모임 프로클레임전 주제 선정

미술대 기독교인들이 전공인 예술을 통한 간증을 위하여 함께 준비해서 전시하는 프로클레임전의 주제가 결정되었다. "회심"이라는 이번 주제가 정해짐에 따라

진정 회심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제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사전 모임들이 계속된다.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9월 문화관은 이번 주제가 정해짐에 따라 중강당에서 열리게 된다.

CCC, 다빈치 코드 매거진 발행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빈치 코드가 영화화되어 개봉되는 것에 맞춰 진리를 흐리는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고자 영화 매거진 형태로 꾸며 펴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허구를 지적하고 성경이 얼마나 신실한지 제시하도록 꾸몄다.

사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의인 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다면 이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필시 이들은 자주 만났을 것이고, 모였을 것이고, 하나처럼 뭉쳐서 도도히 흐르는 이 극단적인 타락의 물결 앞에 땀을 쌓아 흐름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이는 약 40년 전 필자가 동승동 시절의 학생 때 기독교학생들이 주최한 한 강연회를 마치고 평가하는 모임에서 당시 물리학과에 다녔던 한 후배가 했던 말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간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는 말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공동체적 삶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고 그의 성도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 물론 이 교회는 우리 주되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뜻을 순종하는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수많은 학문의 분야가 공존하는 곳이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은 여러 사상의 조류들이 논의 되고 가

르쳐지는 곳이다. 한 마디로 대학은 다양한 곳이다. 대학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공이 다르고 학문적 관심이 다르고 교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우리 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들 모두가 삶의

대학내 기독교인 공동체에 바란다.

주로 그들의 왕으로 같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다. 서울대대학내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 역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함은 우리의 주되신 분의 분부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 곳에서 무리를 모아 남을 지배하는 주도자가 되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이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삼지 않는다. 오히려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육의 공동체가 그 본래의 모습이다. 이웃에 대한 섬김의 프로그램은 예배와 선교의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추진하는 것이 대학교회를 위시한 기독교인 모임들의 해야 할 과제이다.

어두움 속의 빛은 그 존재 양식이 전투적인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원하던 원치 않든 불가피하게 띠게 되는 모습은 전투적이다. 물론 여기서의 전투란 혈과 육으로, 미움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요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사랑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그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캠퍼스가 정의와 보편적 논리로 꾸민 이기주의와 증오의 정신에 의해서 유린되고 지배될 때가 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경적 안목으로 이를 보고 역사적 교훈을 경청하면서 캠퍼스 속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이를 함께 공유하는 것 역시 전투적 공동체의 필요한 과제이다. 적어도 반 그리스도적 정신과 운동이 우리위에 군림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의인 열 사람이 서울대학 안에 거한다면 이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필시 이들은 자주 만날 것이고 모일 것이고 하나처럼 뭉쳐서 도도히 흐르는 어두움의 흐름 앞에 땀을 쌓아 흐름의 진로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달의 설교



박영범 목사
대학총교회 목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거기서 더 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수 있는 용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용사들을 세워라! 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헌신할 용사들, 제자들을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세워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세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세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족속에게 세례 주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오도록,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계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주셨던 모든 말씀과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종교 경험을 적어놓은 책들이다. 성경 형성 당시에 다른 책들도 있었다. 유대 복음서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등등 성경과는 다르게 말하는 다른 책들도 많이 있었다. 최근 영화화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개봉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보면, 당시 유한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문서들이 수천 개나 존재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인간적 특성들을 얘기하는 복음서들은 모두 빼버리고, 그를 신처럼 묘사한 복음서만을 골라 아름답게 윤색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여성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여성을 중시하는 모계 중심의 종교에서 가부장제의 기독교로 개조하기 위해, 콘스탄틴 황제와 니케아 종교회의 참석자들이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자기들 신학에 위배되는 책들을 신약성경에서 제거했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쓰여진 과정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임해지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 간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댄 브라운이 말한 콘스탄틴 황제 때가 아니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공인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7년 카르타고 회의 결의문을 읽어보면, 그 때 신약 27권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인정돼 온 책들 외에 다른 책들은 교회 예배 성경 낭독 시간에 읽혀질 수 없다고 결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교회에서는 정경적 책들 외에 그 어느 것도 기록한 책의 이름으로 낭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경적 책들은 다 음과 같다.” 하면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목록까지 싣고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적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신약 27권 목록

이 그 결의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때 27권이 확정되었다고 부주의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의문을 찬찬히 보면, 정경은 그 이전에 이미 교회 내에서 잘 알려진 하나의 단일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초기, 1세기부터 27권이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하지 않게 AD 90년경 얀나야 회의에서 오늘의 구약 정경이 결정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의 구약 성경들은 하나의 단일체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그 회의에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기독교회에서도 일찍이 그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 다. 우리를 하나님 임재 앞에서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는 성경의 권위는, 종교회의들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통해 부여되어 이미 내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한 직접적 계시를 통해 말씀이 주어지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수한 사람들에게 의해 교회 공동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댄 브라운이 주로 참고했던 영지주의 문서 같은 위경(거짓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고 성경 말씀에 인도함 받은 신자들은, 영적으로 혼미함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영이 다른 것을 쉽게 감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문화적 다양함 가운데서도 자연스런 영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주님의 양인 성도들은

마래복음 28:16-20
가서 제자 삼아라!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도적의 소리를 즉각 알아차립니다.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하셨습니다. (요 10:1-5) 성령 받은 신자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마귀가 성경 형성기에 뿌려 놓은 온갖 거짓 문서들은 금방 위자 달라고 금방 분별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조 달라고 문제도 되었는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전문가들은 진짜 지폐를 자세히 드러다 보고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조 지폐를 볼 때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거짓 성경들이 금방 분별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그 권위를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 불신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적 기독교 신앙과 인본주의적 다원주의 신앙의 분명한 차이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나, 자기의 종교적 창의성에 근거한 신앙이나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레 사탄은 계속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인간 자기 자신의 사고와 판단력과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앤 포스트 모더니즘적 종교 다원주의의 해체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 해체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이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 다.”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독자들은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적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6-9)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적 복음과 66권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사도적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 성경적 교회가 전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지켜 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생활 중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 한국의 비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한국을 다시 세워 가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이 사회를 다시 세워간다는 자세로, 분야마다 자기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양극화 문제와 같은, 이 사회의 어려운 공동체적 문제들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비취 근사치적인 답을 찾아 가려고 함께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 비성경적인 세상 속에서, 금전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시대 속에서, 인격이 시장인격화 되는 인간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삶,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고, 그런 삶을 함께 격려하며 실천하는, 예수의 꿈을 갖고 사는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성서 한국 운동의 비전입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 성서한국대회가 영역별 대회로 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각 영역마다 모여서 선교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놓여진 사회 영역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며 사는 사회 선교사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같은 영역의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더욱더 이뤄져 나가고, 주님의 통치권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에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베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가라 하시는데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더욱 많이 하고, 백성들에게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통치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해 나가는 일에 투신하는 공동체에, 주님께서 당신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분여해 주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려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받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 임하실 것, 성령의 권능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눅 24:49, 행 1:8)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권세를 받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단대 기독인 모임 소식들 ■

인문대 기독인 연합

인문대 기독인 연합은 목요일 기도회 모임과 과/반 기독인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 때 14동 인기연 룸에서 인문대와 과/반 기독인 모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반 기독인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목요모임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버들골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풍성한 식사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감사했던 것은, 새로운 과기독모임이 세워진 것입니다. 고미/공명반 모임이 새로 시작되었고, 언어/너울반도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사/용화반 모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반 기독리더들이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작지만 귀한 모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과/반 기독 리더들이 흘러넘치는 은혜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 모임이 없는 과/반(서사, 국사, 미학, 불문, 독문, 서문)에 모임이 세워지도록, 인문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커뮤니티 jesusandlove.cyworld.com



공대 기독인 연합

1. 공대소식

저희 공대 기독인 연합에서는, 삶에 여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대인의 문화산책이라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흑백이었지만, 전지사이즈의 종이에 짧은 글귀 그러나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담아 공대 이곳 저곳 3~4군데 붙이도록 했습니다.

1~2번 붙이고 나서는 총학생회의 도움으로, 대형 출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학기에 이 운동이 잘 이어져 나가도록, 또한 공대인들에게 많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전기컴퓨터 기독인 모임과 기계항공 공학부 기독인 모임이 함께 모여 301동을 중보하는 시간과, 피자를 시켜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동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기독인들이 있었음을 보고 그래서 더욱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고, 301동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06, 05 학번들을 축복하고, 다음 학기와, 내년에도 이 기독인 모임이 온전히 이어져서, 그 기도가 이 301동 가운데 쌓이고 쌓이기를,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 기도제목

1)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과기독인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감사하는 기도와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대로, 또한 하나

님의 방식으로, 그 기독인 모임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2) 공대 기독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모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모일 수 있는 그런 연합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각 과 기독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각 과의 기독인 모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각 과 기독인 모임 안에서 하나님에서 나아가 각 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각 과 기독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과기독인 모임이 없거나, 아직 모임 여건이 많이 부족한 과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해주세요. (건축공학과+건축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공학과)

생활과학대기독인 모임 - 예혼

지난 3월 기독인 오티에 기독인 06학번들이 4명들어왔고 개강예배와 매주있었던 점심모임 이후로 더 많은 기독인 신입생들이 모임에 함께하였습니다. 다소 생기가 없었던 모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학기 동안 매주 점심모임을 가졌고 단대의 기독인 교수님분들께서도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모임을 갖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독인으로써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학기였던것 같습니다. 바빴던 한학기를 마치며 방학중에는 MT를 계획중에 있고 2학기 부터 생활대 기독인 모임인 예혼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와 스텝진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MT에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마음을 나누고 단대를 더욱 사랑하며 키워갈 수 있도록
2. 2학기에 세워질 단대기독인 모임 대표와 그를 도울 스텝들이 마음으로 준비되어 기쁘고 영광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3. 의류식품영양학과군과 소비자아동학부 기독인들의 연합이 단대 차원으로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경영대

경기독 홈커밍데이



5월부터 방학까지의 경기독 행사입니다-

5월

매주 화요일/목요일: 정기예배 및 점심기도모임
홈커밍데이: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 자리에

Goldman Sachs 이병호 사장 초청 간증 예배
일일카페: 홍보를 위한 생과일주스와 케익 판매
6월

매주 화요일/목요일: 정기예배 및 점심기도모임
종강예배를 드리며 피자파티로 마무리

환송회: 군대/교환학생을 가는 지체들 환 송파티
7월

강릉으로 엠티 갈 계획 중

중국선교여행: 정운오교수님과 중국단기선교

8월

카자흐스탄선교여행: 주우진교수님과 단기선교

약대 기독인 모임

저희는 약대 기독인 모임 새벽빛입니다. 새벽빛은 5월 3일에 그동안 미뤘었던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가족을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0일에는 경마공원으로 봄 소풍을 떠났습니다. 대형웃놀이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새벽빛의 방학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수련회를 겸한 잠포 (잠을 포기한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거예요.



나희대 기독인 연합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사회기연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공동체의 회복과 세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회기연에서는 '공동체'에 특별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 4주에 걸친 테마(기연 공동체, 어린이·가정 공동체, 청년·선생님 공동체, 캠퍼스 공동체-문화)가 있는 모임, 5월 특별 절기(스승의 날, 성년의 날) 축복 행사, 단대 섬김을 위한 지방선거-부재자 투표 홍보 및 신청 운동, Retreat-MT(5/19~20)를 통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서로 하나님의 공동체-그리스도의 몸 안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

특별한 모임 외에, 1학기 내내 계속 이어져오던 금요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과학'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었고, 지난 5월 27일에 마지막 정리 세미나와 함께 책거리 파티(?)를 함께 가졌습니다. 6월 2일에는 사회기연 종강예배를 통해 공식적인 사역으로서는 마무리 짓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하

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종강 후 방학 중에는 관심있는 지체들과 함께 7월부터 '기독교 세계관·성경과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과학도로 부르신 소명을, 오늘날 이 대학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http://sschrist.cyworld.com 으로 와주세요. ^^



음대 기독교인 연합

지난 한 학기동안 하나님께서는 음대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개의 과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졌고, 06학번 새내기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대 기독교인 연합'이라는 이름의 모임도 새롭게 세워져서 과 기독교인 모임이 기도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음기연에는 더 많은 음대 안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모이고, 은혜를 나누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2학기 때에는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음기연 concer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만의 연주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미대 - 미크모

미대크리스천모임(미크모)의 향기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미크모는 개강 후 금요일 5시 정기예배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미대의 복음화와 미대안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며 풍성히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5월 5일에는 봄소풍 겸 올림픽공원에서 '파울 클레' 전시회를 관람하고 9월 마지막 주 문화관 중강당에 있을 프로클레임전시의 주제를 정하였답니다. 올해 주제인 '회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일함과 죄된 것을 돌이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특히 공동체적인 회심에 대한 목상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미크모는 올해의 프로클레임전시가 진정 회심하여 거듭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일에는 축제기간을 통해 전시회기금마련을 위한 '파인애플장터'를 열었는데요. 세밀하게 기도 응답하시며 책임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파인애플로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 1에는은 지도교수님이신 '김병중' 교수님의 말씀인도로 종강예배를 드리며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방학에는 20세기 종교화가 거장 '루오'의 전시를 관람하는 등 즐거운 교제시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계속 프로클레임전시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Spring to Rejoice

5월의 초록 가운데 드리는

서기연 찬양집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4월 초, 서기연 함중규 대표님께서 느닷없이 문자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후, 저는 서기연 중보기도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기연 준비팀이 Spring to Rejoice 찬양집회를 준비하는 현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저녁 6시, 26동 대형강의실에서 강명식 형제님과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과 5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Spring to Rejoice 찬양집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회는 어떠한 것일까, 여쭙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행사를 벌여드리고, 예배를 계획해드리고, 사람들을 모집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아버지,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당신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맞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집회가 끝났을 때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을 기다리면서, 귀한 준비팀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예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만 착각에 빠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제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범위를 내 감정 안에,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 서울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 머리 속의 하나님, 내 느낌에 갇힌 하나님으로...

어느덧 저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Spring to Rejoice에 얼마나 올까,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집회 바로 전 주에야 어리석은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한 분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데, 진정한 행사의 주최자, 진행자는 하나님이 시지 준비팀이 아닌데... 그 때부터 15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15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15일을 말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였습니다

Spring to Rejoice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순서지를 나누어주다가 집회가 시작한 후 30분이 지난 정도에야 들어갔습니다. 약간 지쳐있었지만 잠잠히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강명식 형제님께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가운데, 함께 아버지를 높이는 가운데, 가장 깊은 소원을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너를 안다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뒷정리를 하다가, 단대별 모임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 그 날 부르시진 않았지만, 강명식 형제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셔서 오늘, 전 참 좋습니다. ^^

한은선 (인문 04)

지난 5월 15일, 26동에서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주최로 찬양집회가 있었다. 6시, 강명식씨를 초청하여 1부는 콘서트의 형식으로 서울대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려졌고, 2부는 단대별 모임으로 가졌다. 강명식씨는 찬양사역자로, "온 맘다해"로 잘 알려진 어노인팅 5집의 찬양인도자로 활동했다. 이날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집회는 서기연대의 원회의 중에 예년에 해오던 예수대행진을 놓고 논의하던 중에, 축제 휴강일이 사라진 것과 기독교 운동에 연결되지 않은 크리스천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한 고민에서 나왔다. 과 기독교인 리더들에게 행사 준비의 부담주지 않는 방향으로 잡고, 찬양집회를 통한 쉼과 회복을 목표로 준비되었다. 지난 4월 초에 준비팀이 결성되어, 중보기도회가 있었고, 웹상의 광고와 식당과 셔틀 버스 줄에서 전단지 배포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우연찮게 축제 전야제와 스승의 날이 겹쳐

서 크리스천들이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26동 강의실 1층을 가득 채우면서 불식시켰다.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강명식씨의 간증을 통해 지쳐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복하고 현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시간에 짧아서 아쉽다는 반응과 은혜에 감사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대행진을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행사는 작은 규모의 준비팀으로, 단대와 단체 모임에 큰 부담 없이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집회여부가 늦게 결정되고 준비가 늦어져서, 기독교 내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공동체 내에서 마음을 모으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기연 행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기연 찬양집회를 돌아보며

임현우

■ 선교단체 소식 ■

ESF

안녕하세요 말씀의 사람들 ESF입니다.

- 1. 매주 금요일에 채플을 드립니다.
- 2. 서울대 요회(GBS, 이번학기에는 요한복음)는 수요일에 합니다.

3. GNP(Good News Playing)

ESF관악지구(서울대, 총신대, 경인교대연합)는 5월 한 달 수요일 저녁에 『GNP : Good News Playing』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청된 신입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4. 선교한국

ESF는 2006년 선교한국대회 주관 단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한국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성희 간사님의 인도 하에, 선교한국 홍보챔피언으로 지원한 4명의 동역자가 각 캠퍼스와 부근의 교회에 선교한국대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5. 여름방학 동안의 활동 계획

ESF 전국여름수양회(오직 믿음으로 : 6.28~7.1), 선교한국(잊혀진 부르심 : 7.31~8.5), 새학기기도모임(8.23~25) 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구해성(법,04) 010-2257-2670

이대훈 간사님 019-644-3390

CCC

저희 CCC에서는 다빈치코드의 개봉에 맞춰 다빈치코드 매거진을 발행해서 선교단체와 기독교인 모임에 나왔습니다. 진리를 흐리는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기 위해서 영화 매거진 형태로 꾸몄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허구를 지적하고,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흥미있게 제시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동아시아와 BD지역에 해외 선교팀을 파송하였고, 강원도 양양으로, 평택으로 학습지도를 도와왔는데, 이번 여름에는 제주도과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젊음의 축제, CCC 여름수련회가 6. 26일부터 4박5일간 강원도, 현대 성우 리조트에서 치러집니다. 약 1만여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비전을 놓

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다양한 선택특강과 김준곤 목사(한국 C.C.C 총재), 박성민 목사(한국 C.C.C 대표), 김규동선교사님(일본 요한동경교회 담임), 마리오 블로이세(아르헨티나 C.C.C 대표), 탐 굴디(CM2007 국제준비위원회) 등 저명 인사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6 여름수련회, "예수의 심장으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nucc.cyworld.com

연락처 : 김승연(국악 04) 016-608-3194

이태현(동자 04) 011-9730-1622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and spell JOY!!!!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JOY spirit을 추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선교단체 JOY입니다~~!! ^^

저희 조이는 3월에 20일, 27일 두번에 걸쳐서 새내기(NJOYer)들을 대상으로 환영파티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 3월31일~4월1일에 엠티로 즐겁고(!) 감사한(!!) 교제를 나눴구요~

5월5일에 05 06학번을 주축으로 버들골에서 먹고 뛰어노는 05 06 한마당을 했습니다~~ ^^

JOY는 정기모임, 셀모임, 훈련학교라는 크게 세가지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인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 28동 302호에서 있구요

풍성한 교제와 전도가 함께하는 시간인 셀모임!!

셀 별로 매주 두시간씩 모여서 삶을 나누는 답니다

전문 강사님들의 탁월한 강의와 함께하는 시간인 훈련학교!! 학기중에는 매주 월요일 7시에 두시간씩 6주간 봉천고개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있고 방학중에는 매주 목요일 1시 30분에 두시간씩 6주간 제기동 JOY 회관에서 있습니다~!! ^^

세계와 한국과 서울대와 조이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기도회는 매일(월~금) 아침 8시에 학관 327호에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연건캠퍼스를 개척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연건 조이를, 연건 땅을 변화시킬 공동체를 하나씩 준비시켜 가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간호대 동아리 등록이 잘 되도록, 의대학생회관

안에 동아리 방이 생기도록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JOY선교회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죠이스피릿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JOY)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학생회관 327호로 찾아오세요~! ^^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nujoy.ivyro.net

관악대표 - 신학동(식품공학04)

011-9995-7371

연건대표 - 김현수(간호05)

010-2663-0811

네비게이트 선교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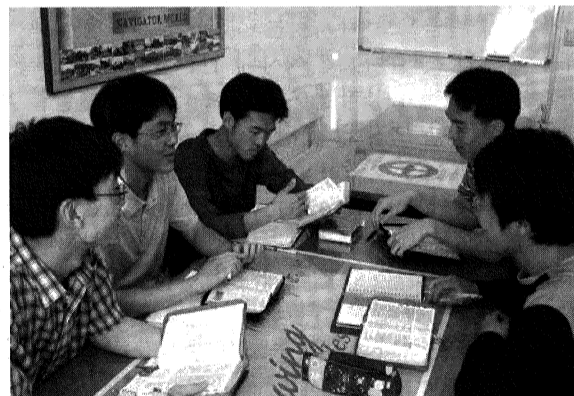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트 선교회는 예수님의 성장의 본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한 신앙인, 능력 있는 전문인,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배들이 후배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함께 축구, 농구, 탁구 등의 운동을 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매 주 화, 목에 성경공부를 하고, 7월 중에 수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새 학기를 대비해서 영어, 컴퓨터 강좌 등을 하며, 동아리 내 팀별 축구 리그전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친목을 다질 예정입니다. ^^

연락처 : (김웅식, 기계항공02) 016-627-5816

email:woongsic@gmail.com

동방: 학관 205호



책 소개

■ 과학과 신앙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교수들의 믿음의 수필들

- 글쓴이들: 박성현, 전종갑, 민동필, 정영근, 정학성, 홍중인, 고 건, 김병문, 제원호, 김희준, 이계준, 임지순, 김경렬, 한종규, 이인규, 이후철, 강신후, 박근수, 우규환, 최승연, 박재형, 이왕재, 박태원, 양병이

1997년 12월 / 도서출판 대학촌 / 값 7000원

■ 좁은 문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

서울대 교수 27인의 삶과 학문과 신앙 이야기

- 글쓴이들: 우규환, 문양수, 박성현, 전종갑, 장창두, 양병이, 한종규, 조성권, 권오승, 이수형, 강신후, 김병중, 김재일, 조흥식, 민현식, 김기선, 홍중인, 제원호, 박근수, 남승호, 박세웅, 박태성, 하순희, 현택환, 김철웅, 이종웅, 송기섭

2003 9월 / 민영사 / 값 1만원

■ 그러나 그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공산치하 동독교회를 이끈 개신교의 노주교의 회고록

글쓴이: 알브레히트 쉐헤르

옮긴이: 유은상

2005 12월 / 도서출판 대학촌 / 값 16,000원

2005 태국 단기 선교 보고

단기선교 준비 :

태국 단기 선교는 강신후 교수님이 지난 10여년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역인데, 이번 선교여행은 이전과 다른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멤버들이 중국 및 캐나 형제 자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해야했고, 동참하는 팀원 중에 세례를 받은지 한달이 안되는 중국형제가 2명(빅터, 두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선교 출발 2주 전부터 팀원들끼리 시간을 할애하여 기독교인 회관 및 920동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모여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말씀 사역, 십자가의 대속, 승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의 시간들을 가졌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기 보다는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6/24~25

강화반석기도원에서의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여,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몇 편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6/26

주일 저녁 9:00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약 5시간 후에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2시간의 시차로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다. 공항에서 "God is so good", "승리하였네" 찬양을 하면서 그 곳에서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강화도에서의 수련회 기간 중에 갯벌에서 럭비를 하며 체력을 너무 소진한 까닭에 모두들 지쳐 있었고, Dubin이 몸살로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공항에서 모든 멤버들이 힘을 합쳐 Dubin을 massage 하기도 했다. 그런데, Dubin은 점차 회복되었는데 내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갯벌에서 뛰다가 접친 발도 나를 힘들게 했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한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 나를 힘들게 했다. 방콕 선교 홈에 도착한 후 도착 모임을 가지고, 나를 위해 전 멤버가 마사지 및 기도를 해주었다. 강신후 교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mail 확인, 전화, TV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셨다.

6/27 (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말씀을 나눈 후 사영리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였다. 강교수님과 김철웅 목사님께서 시범을 보여 주시고, 각자 팀을 나누어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였다.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매 식사때마다 말씀과 찬양을 암송하였다. 말씀은 대부분 전도를 하는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외웠고, 찬양은 캠퍼스에 갔을 때 찬양곡집을 보지 않고 찬양하기 위함이었다. "O Lord My God", "Amazing grace", "Hossana", "You are my all in all", "God is so good", "We have overcome",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사투간 데 프라차우" 등의 찬양을 외워서 불렀는데 악보를 보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시장에 들어서 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들을 사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제 다음날부터는 실제로 전도를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기를 기도하였다.

6/28 (화)

아침 미팅은 요한복음 16장으로 QT를 하였고, 첫 캠퍼스 전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을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실 것과 그 땅 가운데 이상승배와 모든 악한 영의 진들을 무너뜨리 주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 하였다. 전도를 나가기 전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2사람씩 팀을 만들었고, 준비한 성경책을 들고 학교로 떠났다. 아침까지 좋지 않았던 몸이 점차 회복되어 전도를 나갈 무렵에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Karsetsart Univeristy에 도착해서 식당가 옆에서 둘러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였다. 각각 팀별로 2 장소로 나누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들을 contact라고 복음을 전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불교신자라고 말했으나 대부분은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해 자동적으로 불교 문화권에 속하게 된 것이었다. 사영리와 미리 준비해간 영어, 타이 대역 성경책으로 그들로 읽게 하고 복음을 이해 시켰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타이 성경책을 읽게 함으로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의 YMAM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Chock형제와, Diaong, Benz 자매가 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결신한 자들은 현지 형제, 자매와 연결을 시켜서 신앙이 자라도록 조치하였다.

기독교수와 함께하는

“오 주여, 아시아를

Thailand 태국

이번 2006년은 서울대학교 선교팀이 태국을 10번째 방문하는 해이다. 불교의 나라-태국... 불교는 그들의 자라요 실제적인 삶의 근원이다.

그러나,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게하며 길 아닌 곳을 길이라고 말하는 땅이다.

풍부 속에 가난이 그들의 웃음 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다.

태국을 바꾸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바꿀 수 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떠나 주님과 함께 그들을 돌아보자.

2006. 5.29. 강신후

선교 참가자 비용: 600,000

태국 단기선교 전체 일정

- 8/18 (금)-20 (일) 선교 훈련: 영어 찬양 및 사영리를 사용한 전도 연습
- 8/21 (월) 방콕으로 출발
- 8/22 (화) Kaset Univ. 전도
- 8/23 (수) Thammasat Univ. 전도
- 8/24 (목) Chulalongkom Univ. 전도
- 8/25 (금) Kaset Univ. 전도
- 8/26 (토) 태국 사원 및 왕궁 땅 밟기, Thammasat Univ. 전도
- 8/27 (일) 태국 교회에서 예배, Chulalongkom Univ. 전도
- 8/28 (월) 서울 도착

연락처: 홍종인 교수 (전화: 880-6682, 010-6378-4084)

2005년 캄보디아 단기선교 보고

어느덧 저도 예수님을 만난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고 그 이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뜻을 심어주셨습니다. 아직 전도도 별로 안 해봤고 특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 아무런 배경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깊은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게 받았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계속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던 준비 등.. 솔직히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된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 땅에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선교지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 스케줄, 항공기 여건등 한 스텝 나아갈 때 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은혜였습니다.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해외 여름단기 선교

당신께 드립니다”

Cambodia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입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크메르 루즈에 의해, 중상류 계층과 지식인들은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서구의 영향과 과학 기술 등은 축출되었고, 도시 거주자들은 모두 강제로 시골로 이송되어 통제 아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독재와 게릴라전은 계속되었고, 1993년에 이르러, 유엔의 감독아래 첫 민주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내란의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는 나라, 캄보디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열려가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이제, 상처받고 지친 캄보디아인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오랜 공산주의와 폐쇄되어있던 경제, 압제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상처받은 나라 캄보디아. 가난하고 더럽고 낙후된 그 땅은 불과 50년 전 우리 민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치고 상한 그 민족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캄보디아 단기선교 팀은 2000년도부터 매년 여름에 프놈펜 대학 캠퍼스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여명의 팀원들이 캠퍼스 전도, 교회 협력 사역 및 사역지 방문을 통하여 캄보디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에 대하여 활짝 열려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Killing Field)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Living Field)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 전체 일정

- 6. 30(금) : 9:00 인천공항 출발(싱가폴 항공), 싱가포르 경유, 17:10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 7. 1(토)-7. 3(월) : 나르영 교회 예배 참석, 주일학교 섬김, 현지 청년들과 교제
 - 7. 3(월)-7. 7(금) : 프놈펜 대학 전도, 현지 사역지 방문 등
 - 7. 8(토) : 전도 초청집회(Come & See) 준비
 - 7. 9(일) : 깔멧 교회 예배 참석, 결신자 초청 및 전도 예배(Come & See)
 - 7. 10(월) : Killing Field, 툴슬렝 방문. 땅밭기 기도. 18:10 프놈펜 출발 싱가포르
 - 7. 11(화) : 인천 공항 도착 (오전 7시)
- 동역 선교사 : 공베드로-이선아 선교사, 조학현-정승원 선교사(깔멧교회)
연락처 : 홍종인 교수 (전화: 880-6682, 010-6378-4084)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직 깨어지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섬기리라 낮아지리라 하며 먹었던 제 마음에 예수님 대신에 아직 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한 저희는 시골의 개척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들은 동네에서 내팽겨친 돌아가시기 직전의 아주머니를 만났고 저희들은 그 아주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아주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마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날 저희는 드디어 프놈펜 대학교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사역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 나섰습니다. 영혼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비들의 잇단 방해로 계속 캠퍼스 밖으로 쫓겨나기 까지 했지만 이 곳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7월 5일 다시 프놈펜 대학교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크리스찬을 만나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기쁨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시는 공베드로 선교사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말씀을 주님의 부

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오전에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빈민촌 어린이 사역에 나섰습니다. 정말 전혀 때 묻지 않은 영혼, 그러나 신발 하나 없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러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23살의 청년 리더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다들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헌신하는 모습들은 제게 도전이었습니다.

7월 7일 역시 오전에 한 두 팀만 전도를 하고 오후에 임신자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시며 선교활동을 하시는 임신자 선교사님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7월 8일 마지막으로 프놈펜 대학교로 전도하는 날입니다. 제 전도짜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7월 9일 오전에 킬링 필드 및 툴슬렝(폴꽃 정권 시대의 감옥 및 고문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인간의 잔학성을 보았으며 정말 하나님께 이 땅의 고통을 치유해주세요.. 어둠의 권세를 뿌리 뽑아 주세요...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중에 전도 중에 만났던 한 청년이 가족 중에서 자기를 제외하곤 크메르 루즈로 인해 다 죽었으며 혼자 살아남았다고 절규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정마다 크메르 루즈로 인해 받은 상처와 한을 치유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날 같은 방을 쓰던 지원이랑 연우랑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세요....

7월 10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 큐티를 마친 후 바로 깔멧 교회 어린이 사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작은 교회지만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Come & See에 전도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초대한 지체들이 왔을 때는 어찌나 기뻐했던지... 또한 파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간증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셨듯이 그들 한 명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길 원했습니다.

7월 11일 사역을 마치고 씨엠립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터에서 다 같이 축복기도를 하고 그 곳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고통이 있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앙코르 와트 유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적지에 있는 조그만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자라서 사원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에서 큰 나무로 자라며 어두움의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계속 증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캄보디아에 보내셨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영이 판치는 캄보디아에서 불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저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영생의 소망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사역리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시지만 제 그릇이 작아 부어주시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좋은 팀을 만나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부터 선교지에서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지.

캄보디아 땅에서 헌신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땅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녘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포들.. 선교 기간동안 내내 불렀던 찬양으로 이 간증을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강영재: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특별기획

다빈치 코드에 대한 성경적 대응(1)

이 글을 쓴 브라이언 기네스(Bryan Guinness)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시내에 위치한 피플즈 교회의 부목사님입니다. 피플즈교회는 맥길 대학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학생 천교가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글은 5월 첫 주일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읽은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이 소설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고, 영화상영 마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그 소설의 사실과 허구를 올바르게 가려낼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피플즈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에 실을 원고를 부탁하셔서 브라이언 목사님의 글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86학번입니다. 89년부터 대학총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현재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독문학과 81학번이고, 89년에 외교부에 입부해서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 항공기구 대표부(ICAO)에서 근무중입니다. 몬트리올은 동경, 블라디보스톡에 이은 세 번째 임지입니다.

몬트리올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피플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풍토가 강한 캐나다에서 피플즈 교회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고, 맥길 대학 근처에서 대학생 천교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역자 이운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첫 장에는 이 책이 허구임을 인정하는 한편, 책에 나온 사실(날짜, 문서, 역사적 인물 등)은 정확하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은 사실과 허구를 어떻게 구별할 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댄 브라운이 역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조작된 것이 분명한 부분조차 사실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무엇이 사실이고 허구인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빈치 코드의 줄거리

다빈치 코드는 루브르 박물관에 박물관장의 시체가 놓여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편, 때마침 파리에 들른 하버드대 종교 기호학 교수인 로버트 랭던(Robert Langdon)은 살해된 시신에 남겨진 이상한 암호를 해독하도록 프랑스 경찰에게 부탁받는다. 랭던은 조사과정에서 젊은 암호해독가인 소피 니브(Sophie Neveu)와 만나게 된다. 소피에게서 자신이 유력한 살해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랭던은 소피와 함께 살인 현장으로부터 도주한다. 살해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실마리를 남겨서 누군가 추적하도록 한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 그 범주는 성배(聖杯)를 찾고자 하는 전설적인 탐색과 연결되어 있다. 도주 중인 랭던과 소피는 성배 찾기에 광적인 레이 티빙(Leigh Teabing)을 만나게 된다. 티빙은 그들에게 예수와 신약성경에 대한 기존의 이해들을 뒤집는 문제들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그는 영지주의의 고문서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더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세 명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런던에서 스코틀랜드로 달아난다. 그들은 교회가 대중에게 숨기고 있던 암호와 문서들을 서서히 밝혀낸다. 그 비밀스런 사실들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외동딸을 낳았다는 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십자가형 이후 마리아와 딸이 골(Gaul)로 가서 프랑크 왕조인 메로빙거 왕조(Merovingian)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왕조는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과 그들의 소재는 시온 수도원으로 알려진 조직에 의해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몇 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이 비밀조직의 회원들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작 뉴턴과 빅토리 유가가 포함된다. 게다가 성배는 다름 아닌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에서 얻어진 후손을 상징한다. 레오나르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다중적인 의미를 숨기기 위해 그의 잘 알려진 그림, ‘최후의 만찬’을 이용한다.

성경적 대응의 개요

댄 브라운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 책은 기독교가 엄청난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브라운에 따르면, 예수는 신이 아니며, 그의 추종자들이 남성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여신 숭배자들을 압제하고자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브라운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니케아 종교회의(Council of Nicaea)에서 창안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다빈치 코드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책 표지에 “이 책에 나오는 미술품, 건축물, 문서, 그리고 비밀 의례의 모든 기술은 정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댄 브라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 책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 달리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주제 하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밝힐 것이다.

- 1] 콘스탄틴과 니케아 종교회의
- 2]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복음
- 3] 예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성배의 추적
- 4] 성서: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5] 성서의 정확성

1] 콘스탄틴과 니케아 종교회의

질문) 콘스탄틴 대제가 개인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재창조했는가?

질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현대 신약성경이 꾸며졌거나 만들어졌는가?

콘스탄틴과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한 다빈치 코드의 세 가지 주장

1. 콘스탄틴이 권력 강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안했다. 다빈치 코드에서 레이 티빙 경은 종교회의의 대표들이 예수의 신성에 관해 동의했다고 소피에게 설명한다. “그 이전까지 역사에서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인간인 예언자……. 위대하고 강력한 인간, 하지만 결국 하나의 인간으로 보아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콘스탄틴이 정치적 이유에서 “예수의 죽음 이후 거의 3세기가 지난 뒤에 예수의 지위를 승격 시켰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 콘스탄틴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여신에 대해 우호적인 다른 책들을 신약성경에서 제외시켰다. 티빙의 말을 인용하면, “80개 이상의 복음서들을 신약성경에 포함시키려 했다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 등이 선택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교도인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추려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빈치 코드에 의하면, 콘스탄틴이 기회를 포착해서 남성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정치적 목적에 걸 맞는 문서들을 정전(正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3. 그리스도 신성에 관한 교리는 “비교적 근소한 투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콘스탄틴과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콘스탄틴의 개종: A. D. 312

교회사 학자들이 기독교사에 있어서 신약성서 다음으로 꼽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A. D. 312년에 일어난 콘스탄틴의 기독교로의 개종이다. 그 배경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콘스탄틴의 군대가 로마 근교 밀비안(Milvian) 다리에서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Maxentius)를 전복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거기서 승리하면 콘스탄틴이 로마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이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밤, 그가 이교도 신에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한 낮의 태양 위에 십자가 형상과 거기에 붙어있는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글귀를 환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꿈에 그리스도가 환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뜻을 들고 나타나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적과의 모든 전투에서 호위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그의 군대는 다리를 건너 기독교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에 그는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해서 기독교인이 더 이상 박해받지 않도록 포고했다.

니케아 종교회의: A. D. 325

4세기 초에 교리상의 논쟁이 로마제국을 분열시키고 있었다. 아리우스(Arius)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이 아니며 일종의 창조된 신이라고 주장해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많은 교회 주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은 계속되었다. 콘스탄틴은 의견대립을 진정시키고 기독교를 통일하고자 니케아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초대된 주교들의 경비를 지불했으며, 개회 연설에서 참석 대표들에게 교리상의 불일치는 전쟁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명 이상의 주교들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다.

질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그리스도의 신성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선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인되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서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16 -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1-3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로마서 9:5 -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2) 예수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유사한가 아니면 같은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예수가 아버지와 완전히 같은 존재(그리스어로 homoousion)라는 견해를 갖는 주된 대표자이다. 회의 참석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해서 우리는 현재 잘 알려진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자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임을 단언했다.



콘스탄틴과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한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일말의 역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종교회의 대표들에 의해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이전 몇 세기에 걸쳐 교회에서 지지받아 온 교리이다. 두 가지 사항이 이를 뒷받침한다.

A. 교회 신부들

* 시리아의 안디옥 교주,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A. D.110년 그리스도를 신으로 언급

* 사도 요한의 제자, 스미르나(Smyrna)의 폴리카프(Polycarp)가 A. D.112-118 예수의 신성을 확인.

* A. D.165년에 순교한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이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

* 리옹(Lyons)의 주교, 이레나이우스(Irenaeus)가 A. D.177년에 예수는 완전히 신인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라고 가르침

* 터툴리언(Tertullian, A. D. 150-212)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주장

이러한 예들은 그리스도 신성에 관한 교리가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오랫동안 교회의 교리였음을 보여준다.

B. 기독교 순교자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가 신이라면 그와 동시에 다른 존재, 즉 황제를 경배할 수 없음을 알았다. 모든 시민들은 의례를 행할 때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도록 되어 있었다. 크리스천들은 곤란한 선택에 직면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순응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이교도들은 황제를 경배하는 동시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최고 유일신을 믿지 않는 이상, 다른 신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존재를 경배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예수는 최고의 유일신이며 따라서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거부함으로써 순교당한 수천 명의 초기 크리스천들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의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믿어왔던 증거이다. 콘스탄틴이 “예수의 지위를 승격”시켰다는 다빈치 코드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인 것이다.

2. 콘스탄틴과 회의 대표자들이 남성권력과 성적억압이라는 그들의 신학을 거스르는 복음서들을 신약성서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 역시 순전한 허구이다. 사실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역사학자 에우세비오(Eusebius)로부터 온 것이다. 그는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의제가 니케아에서 논의되었다고 암시한 적이 없다. 20개 사항의 판결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발표되었고 그 모든 내용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그 어느 사항도 어느 문서가 권위적이며 어느 문서가 성경의 정전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3.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 신성에 관한 투표가 이슬아슬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318명 중 5명만이 니케아 신경에 이의를 제기했고, 2명만이 결국 서명을 거부했다. 그 결과는 “근소한 차이”가 아니었다.

2] 영지주의와 영지주의의 복음서

질문)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질문) 영지주의의 복음서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서점에 가면 소위 성경이라 불리는 다른 책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도마

서, 빌립보서, 마리아서, 진리서(Gospel of Truth)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성경이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gnosis)에서 유래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단어는 오로지 식자층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지식을 뜻할 때 사용된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자기계몽이다.

영지주의는 예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 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영지주의는 신약성서의 사실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영지주의의 복음서의 문제점

1. 의심스러운 출처

초기 사도들의 이름을 딴 영지주의 복음서들의 저자는 그 사도들이 아니다. 문서들이 쓰인 시기와 장소들을 보면 단지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도들의 이름을 빌린 것을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그러한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 데살로니가 후서 2: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1세기에는 이미 바울의 서명이 위조된 이단의 편지들이 있었다. 이러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과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

2. 문서들의 늦은 저작연대

이러한 영지주의의 문서들은 신약성경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쓴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는 3세기에 시리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서는 2세기에 만들어졌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정전의 복음서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A. D. 70년 이전에 완성되었다. (A. D. 95년 말에 완성된 요한복음은 예외일 것이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였고, 마가복음은 목격자 바울의 설명에 근거해서 쓰였고, 누가복음은 본 것을 적었다고 복음서 처음에 진술하고 있다.

* 누가복음 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자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

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료였다. 그는 사실들을 주의 깊게 연구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분명하고 진실되게 진술되어 있다. 19세기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William Ramsey) 경은 누가서의 역사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일생을 바쳐 공들여 연구한 결과, “누가복음의 역사는 그 진실성에 있어서 탁월한 저서이다”라고 기록했다.

3. 문서들의 내용

그 내용 면에서 신약성경과 판이하게 다르다. 다빈치 코드 깨기(The Da Vinci Deception)의 저자, 어윈 루처(Erwin Lutzer) 박사는 영지주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복음서들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사실과 반대된다. 이야기가 별로 없고 연대기적 서술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그것들은 연구, 지리, 역사적 상황 등에 무관심하다……. 신약성서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의 인용구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빌린 어리석은 말들이 대부분이다.”

3]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Magdalene Mary)

질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 대신 막달라 마리아를 그렸는가?

질문) 마리아 자신이 성배인가?

질문)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어떤 증거라도 존재하는가?

다빈치 코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밀조직, 시온 수도회의 회원이었다고 주장해서 아주 유명해졌다. 이 수도회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집단인데, 교회의 반대로 비밀이 감추어져야만 했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비밀을 그림이나 글, 건축물 등에 암호화했고, 따라서 소수의 학자들만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 다빈치코드는 레오나르도의 그림의 암호화가 곧 레오나르도가 예수와 마리아의 결혼 사실과 성배는 컵이 아닌 마리아였음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한다. 이 소설에서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이 역사적 기록의 일부이다.”라고 쓰여 있다.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에 요한 대신 마리아를 그렸는가?

소설에서는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오른쪽에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그렸다고 했다. 더구나 테이블에는 컵이 없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성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마리아의 존재는 “교회에서 제거시켜 버려

■ 인터뷰 ■

다빈치 코드 매거진을 펴낸

김수봉 간사를 만났습니다

최근 다빈치 코드의 상영과 관련하여, 교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영금지를 주장하며, 원천 봉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그렇게 영화 하나로 쉽게 흔들릴 복음이나는 비아냥도 있다. 소설에 이어 영화로 다시 등장한 다빈치코드의 영향력을 놓고, 그 대책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중에, 다빈치코드를 역으로 이용하여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내에서 다빈치코드 매거진의 배포를 맡고 있는 김수봉 간사(서울대 CCC 책임)를 인터뷰 했다.

임현우(언어 03, 진나빛 학생기자, 이하 임) : 안녕하세요 김 간사님, 저는 진나빛 학생기자 임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간사님께서 캠퍼스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봉 간사(서울대 CCC 책임, 이하 김) :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와 순모임 그리고 C.C.C. 예배와 교육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대 C.C.C.는 팀사역을 통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협력과 하나됨을 통한 행복한 섬김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내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그리고 서울대학교교회와 기독교인 교수님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 : 요즘 영화 상영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간사님은 다빈치 코드 영화 상영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영화 상영을 찬성하시나요? 그리고 영화 상영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 : 다양하고 상대화된 시대 속에서 "다빈치 코드" 영화상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인의 편협화된 문화인식으로 혹은 영화에 대한 관심과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의 절대성 그리고 교회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 그렇군요. 상영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다빈치 코드 매거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김 : "다빈치코드 매거진"은 영화 "다빈치코드"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성경과의 비교를 통한 성경의 절대적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다빈치코드"가 가지는 중요한 허구성에 대하여 역사적 문헌학적 문화적으로 파헤치며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는 대다수의 일반 대학생들이 영화를 문화생활로 여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영화 "다빈치 코드"가 미치게 될 복음과 예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리어 이를 매개체로 하여 적극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학가와 심대들에게 이 매거진을 대량 무료배

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8일 전 세계 동시 상영되는 영화 "다빈치코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다빈치 코드"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C.C.C.에서 긴급 발행한 20페이지 전체 칼라판 "다빈치코드 매거진"이 4월 16일에 발간된 이후 현재 약 5만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빠르게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빈치 코드 매거진" 일독을 권합니다.

임 : 지금까지 캠퍼스에서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기로 우리 캠퍼스에서 배포가 시작되었고, 현재 얼마나 배포가 되었습니까? 서울대 내외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김 : 서울대 내외 있는 각 선교단체들과 서기연 그리고 서울대학교교회와 몇몇 과기독모임을 통해 2,650부 정도가 배포되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다빈치코드 매거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대학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 책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해서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파장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5월 18일부터 상영된 "다빈치 코드" 영화가 지루하고 단조로운 진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다빈치 코드 영화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매거진은 기독교인들과 관심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 C.C.C.에서 간사훈련을 받고 있는 간사님들이 전도할 때 사용했는데 아주 유익한 선물이 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는 방법과 과기독모임이나 소그룹(순모임)모임 등에서 함께 읽고 활용한다면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 : 서울대 캠퍼스에 배포한 양만 봐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전단지도 아니고, 잡지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포를 돕는 분

들이 계십니까?

김 : 현재 C.C.C. 자체적으로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 2만부를 무료 배부 하였으며, 뜻있는 지역교회들이 대학생들에게 매거진으로 무료 배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교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000부,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2,500부, 이온팜스(주)에서 인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하여 5,000부를 무료배부하기 위해 전액 후원(1부당 500원)하였습니다.

임 : 다빈치 코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로 복음을 위협하는 물결이 거셀 텐데, 마지막으로 캠퍼스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으면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 : "다빈치 코드"는 단순한 문화를 넘어선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절대성, 교회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절대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일이 더 높은 강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신앙훈련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캠퍼스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화(문화)자체를 단순히 반대하는 네가티브 운동(Negative Movement)보다는 적극적인 기독교적 대안제시와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대화의 접촉점으로 찾는 파지티브 운동(Positive Movement)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진리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님

서 지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성스러운 여성과 여신"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은 요한 사도 대신 마리아가 예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개념을 부인한다. 그림에서 요한이 약간 여성스럽게 보이지만, 플로렌스의 다른 요한의 초상화들을 보면 일관된 묘사로 그려져 있다. 가슴에 대한 묘사가 없는 사실도 참조할 만하다. 템플(Temple) 대학의 미술사 교수직을 은퇴한 잭 와서맨(Jack Wasserman)의 말을 인용하면, "덴 브라운이 레오나르도에 대해 쓴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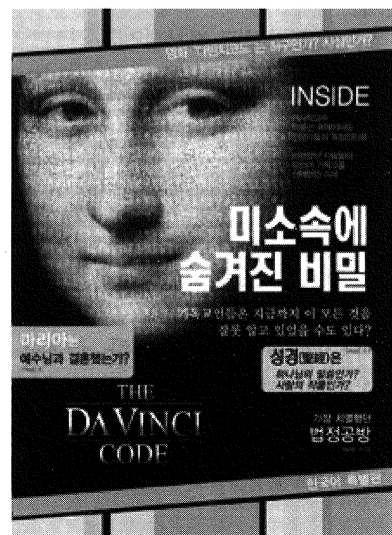
마리아 자신이 성배인가?

예수가 성만찬 의식을 베푸는 날 밤에 잔을 사용했겠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12세기에 그 잔에 성배라는 칭호가 붙어서 마력이 있다고 믿는 이야기가 회자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5세기에 와서야 성배는 사물이 아니라 가족 계보, 즉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왕족혈통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신약성경의 어떤 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신약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약성서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6명 나온다;(1)예수의 어머니(누가1:30-31); (2)예수가 사망에서 살린 나사로의 자매, 베다니의 마리아(요한 11:1); (3)글로바의 아내이자 요세와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마태 27:56, 마가 15:40, 요한 19:25); (4)요한 마가의 어머니(사도행전 12:12); (5)신원이 정확치 않은 마리아(로마서 16:6); (6)막달라(Magdala)라는 출신지를 언급함으로써 구별되는 마리아(누가8:2).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소개했다. 당시에는 예수와 사도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여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 중 막달라로 불리는 마리아는 몸에서 일곱 귀신이 나갔다. 그 외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등 다수가 그 모임에 속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도왔다"(누가 8:2-3). 누가복음의 앞부분에는 예수에게 온 무명의 창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자들은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속단할 지도 모른다. A. D. 591년 그레고리(Gregory) 교황이 부활절 설교에서 누가복음 7장의 창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관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임과 제자들은 그녀를 살로메, 예수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이자 요세와 어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결시켰다.(마가 15:47-16:1; 요한 19:25; 마태 27:61). 이 여인들은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브라이언 기네스, 피플즈교회 목사
이윤선 옮김
(다음호에 계속)



■ 간 중 ■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게 약함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7 -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사회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부터, 나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과반 생활을 시작하면서, 종종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부터 사소한 생활 스타일에까지 충돌이 생겼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나는 새벽기도에 가고 싶고, 그러려면 일찍 자야했습니다. 그런데 과반 사람들은 밤에 만나서 야식을 먹고 술자리에서 밤을 같이 새야 정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이었죠. 기독교인 공동체에 있으면 사랑이 넘치고 정말 편해서 좋는데, 과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반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과반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당신을 알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시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과반 친구들이 모두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공동체보다는 주로 과반 안에 있으면서, 친구들을 진실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 사람들과 직접 긴 시간을 대면한 첫 자리가 술자리였습니다. 기독교인 오티 때 세상 문화에 대한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도 듣고, 기도를 통해 결단한 바도 있어서 전생태에 나온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학번 선배님께서 술을 따라주려 하셨고,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금방 사이다를 시켜서 따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가는 술자리에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꼭 사이다를 시킵니다. 저를 배려해주어서 뒤풀이를 찾집으로 간 적도 몇 번 있는데, 이 사례가 저희 반 지난 새맛이 관련 논의에서 뒤풀이 술자리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조금 친해져서는 "교회 다니면 왜 술을 안 마시나?", "교회 다니는데도 술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제 믿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이때 관심을 보였던 친구 중 한 명이 몇 달 전부터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새터 날짜가 주일과 겹쳐서 새터를 가지 못했습

니다. 이를 계기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과반 행사는 항상 주일을 피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들었지만, 저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믿음은 적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한 기독교인 친구들도 꽤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친구들이 과반 안에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함께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전체가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굳이 시간을 쪼개서 엠티를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쓰여서, 반 엠티에는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요, 1학기에 05학번끼리 같던 엠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 땅에서 보낸 새내기 시절

그 때 역시나 밤이 늦도록 술판이 벌어지고, 저는 음료수를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녀본 적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술에 취한채로 '주께 가오니' 찬양 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꼬부라진 혀로 찬양하던 소리를 잊을 수가 없

“나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반에 기도 모임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그 때 빙 둘러앉아서 서로 축복송을 불러주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반에 기도 모임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05학번 동기들 중에서는, 행실에서 드러날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04 학번 중에 과반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한 선배가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다고 해서 연결이 되었는데, 그 분마저 개인 사정으로 기도 모임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 모임을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과반 지체님들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가 기도 모임에 와 본 후에 마음을 결단하고 교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도모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임을 매번 느낍니다.

사실 저는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를 해왔습니다. 정말 합격이 되고 입학을 했는데, 반 모든 친구들에게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할 기회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자존심과 아직 버리지 못한 자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감만 가지고 계속 미루어오고 있다가, 여름 방학 중에 결단을 하고 제 미니홈피에 긴 간증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제가 아는 저희 반 거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각오를 하고 올린 글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먼저 Open하고 나니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Open을 하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고집스런 믿음에 대해 더 알고자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일하셨음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과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고히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 손에서 놓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연약하고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아버지와의 교제를 등한시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는 정말 하루하루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과반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낙심이 되어서 지쳐 포기하고 싶었고,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도 못하겠고, 그냥 신학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단대 기독교인 연합 지체님들과 매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매주 아크로(현재는 문화관 앞) 찬양 모임에 참석했는데, 캠퍼스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오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경로로 귀한 믿음의 지체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고, 이분들의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에게 지난 새내기 시절은 더없이 소중한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잠시 방향의 시기도 있었고, 앞으로 또 그런 시기를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대학 생활이 날로 기쁘고 기대된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멋진 대학 생활 해 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대 경제학부 05 김미진

6면에서 이어짐

6/29 (수)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에게 하나가 될 것을 기도중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항상 식사를 하기전에서는 말씀과 찬양을 암송하였고, 오전에는 성경책에서 사역리에 인용되는 성경구절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며, 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먹고, 다시 팀을 나눈 후 Lachamonkon University로 떠났다. 식당가에 도착하니까 음료수 홍보차 홍보팀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행사를 하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히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다른 적당한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 그냥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했다. 약 30분간의 찬양이 끝난 후 주위를 돌아보니 아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소리는 사라지고, 조용한 가운데 여기저기에 복음을 기다리는 물고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들을 contact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승배로 놀린 도시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좁은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며 뜨거운 형제애를 느꼈다. 그들이 소수의 무리로 모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 예배 후 형제자매들과 교제 및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6/30 (목)

오전에 일찍 태국 왕궁(King's palace)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밟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땅에 우상을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 곳은 건물마다 금으로 도색이 되어져 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처럼 그들도 송아지의 형상 뿐만 아니라 각종 수호신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우상의 중심인 대웅전에는 수많은 불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한국사람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그 곳은 왕궁(King's palace)이 아니라 우상의 왕궁(Idiol's palace)였다. 강 건너편에 있는 새벽사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높은 탑 곳곳에 수호신의 형상을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무지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혜성자매와 빅터 형제는 계획대로 그들의 일정을 충실히 소화하고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은 일정이라 2일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쏟아 붓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떠나면서 끝까지 함께 하고픈 마음을 달래며 남는자들에게 강한용사가 될 것을 부탁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특별히 빅터 형제는 세례를 받은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이지만 훈련기간 동안 많이 성장하였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형제를 통해 여러 태국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보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었다.

7/1 (금)

요한복음 19장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였다. Kasetsart university에 2번째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사역하는 YMAM 형제 자매들이 한번 더 와서 전도를 해 줄 것을 부탁해서 재차 방문한 것이다. 저번과는 달리 새로 지은 식당내부에서 찬양을 하고, 많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 김철웅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는 자기학교(Tamassart University)에서도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학교는 우리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영접한 지체들

의 e-mail과 전화번호를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정보를 나눌 것을 약속하였다.

7/2 (토)

이날은 토요일이라 학교에는 오후에 학생들이 많이 없을 것이고, 공원에는 일반인들이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 사역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를 한 후 제비를 뽑아 사역지를 선택하였는데 룸비니공원(Lumbinipark)으로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우려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룸비니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도착한 후 입구 한켠에 있는 정자에 자리를 잡고 찬양을 한 후 팀별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충분히 전할 수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룸비니공원으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전도를 마치고 우리를 도우며 있는 현지 선교사 와사나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신 유정환 선교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방송선교, 음악선교, 태권도 선교등을 준비하고 좋은 건물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7/3 (일)

Jaisamarn international church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매우 큰 교회였으며 예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헤드폰을 이용하여 영어로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세계 각지의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고, 멀지 않는 시일내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였다. 예배 중에 우리 일행이 소개되었고, 예배 후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와 기도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였다. 예배를 드린 후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다.

7/4 (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 이날은 Tamassart University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스피치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철웅 목사님은 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10명의 학생들이 영접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했다. 강 교수님은 마음 받이 아주 좋은 학생을 전도했는데 이 학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현지 YMAM 형제들과 연결이 되었고, 사역자로 설 수 있을 만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뒷날 YMAM 모임에도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 곳에서 적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7/5(화)

선교 여행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열정을 모두 쏟기로 하고, 남은 성경책도 모두 준비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성경책을 들고 사역지로 나갔다. Phranakhon University는 YMAM 사역자인 choke 형제의 부탁으로 전도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라 택시를 이용해 가기로 하고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하였다. 그런데 2대 모두 길을 잃고 2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약 1시간 30분 이상을 도로위에서 소모하였다. 우리의 감정도 약간은 격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탄의 방해가 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 들어서자 학교 중앙에 큰 불상을 모셔놓은 사원이 눈에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 무슬림 사원이 있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이상승배로 놀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식당가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장소를 골라 찬양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 경비가 다가와 우리를 저지하려 했고, 교수님이 경비와 함께 총장실까지 가야했다. 그러나 교수님은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내며 우리의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그곳은 학생들이 영어가 통하지 않아 여러차례 시도를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붙혀 달라고 기도하였다.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한 그룹의 자매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였는데, 여전히 영어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자매를 보내주셔서 그 자매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매들은 친구인 크리스찬 자매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그 자매도 그 친구들을 돌보기로 약속하였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심에 매우 고무되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남은 성경책 한권을 누군가에게 주기위해 그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남학생들에게 접근하여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관심을 보이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책을 주고 오려 했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그 형제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제시를 했고, 결국 그 형제는 자기 입으로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Choke 형제를 통해 태국어로 한 번더 간단히 복음을 정리한 후 Choke 형제 교회에 다음주부터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 형제가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능력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우선시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 앞에 보이는 환경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 놓고 그분의 일하심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셨고, 무엇보다 중국형제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 주셨다. 두빈 형제는 작년 9월에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처음 교회문을 두드렸다. 이제 다음주 화요일(7/12)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약 한달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전 단기 선교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선교 기간동안 줄곧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로 주 안에서 사랑스런 형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국에 혼자 돌아가서 교회를 찾아야 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하고, 아직까지 가정교회를 통해 음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문화권에서 겪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두빈형제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 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 했던 지체들이 내년에 어디에 있던지 다시 한번 태국에 모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그 중 복음을 끝까지 제시한 사람이 116명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49명이었고, 67명을 결정을 보류했거나 더 알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태국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부르실 것을 기도한다.